

이병주 소설 연구

- 학병세대의 내면의식을 중심으로 -

강 심 호*

I. 서 론

작가 이병주는 1921년 경남 하동에서 출생하여 일본 메이지대학 문예과와 와세다 대학 불문과에서 수학하던 도중 학병으로 동원되어 중국 소주에서 지냈으며 해방 후 진주농과대학과 해인대학(현 경남대학)에서 영어, 불어, 철학을 강의하다 1955년 부산 국제신보에 입사하여 편집국장 및 주필로 언론계에서 활동했다. 1961년 5.16때 필화사건으로 혁명재판소에서 10년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가 2년 7개월 후에 출감하여 외대, 이대 강사 생활을 하다. 1965년 40대에 들어서서 중편 「소설 알렉산드리아」를 『세대』지에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등단했다. 그 이후로 이병주는 1992년 4월 3일 지병으로 타계하기까지 80여권의 중, 장편을 발표하여, '한국의 밸자크'라고 불리울 만큼 엄청난 집필량을 자랑하는 다산의 작가였다.¹⁾

작품의 양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분명 온당하지 않겠지만, 약 30편의 단편 소설만을 발표한 김유정에 관한 연구서지가 약 360여편에 달하는 반면, 그 수십배에 달하는 작품분량을 가진 이병주에 대한 논의가 겨우 평론 몇편에 그칠 만큼 인색한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김종회는 이병주가 현대사회의 애정문제를 다른 소설들에서 지나치게 대중적인 성격을 부각

* 박사 과정 수료, 광운대 강사

1) 이상의 내용은 『관부연락선』(동아출판사, 1995)에 실려있는 연보를 참조한 것이다.

시킨 나머지 문학작품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양식의 수위를 무너뜨렸으며, 그러한 부정적인 경향이 다른 부분의 납득할 만한 성과를 중화시켜 버린 까닭²⁾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몇몇 대중적인 작품 때문에 다른 모든 작품들이 경시되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상론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한일관계에 대한 이병주의 독특한 시각과 그가 보인 철저한 반공주의적 태도가 비평가들이나 연구자들에게 선입견을 부과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이병주는 민족주의라는 당위에 혼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한일관계와 해방후의 정국을 들여다보려 했는데,³⁾ 그러한 반성에는 소위 '학병세대'의 자의식이 자리하고 있어서 한일관계에 대한 작가의 서술은 위험스러운 출타기를 보는 듯 친일과 민족주의의 경계선상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태도가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식민사관'의 결과물로 파악되어 무가치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작가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공산당 혹은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연구자들에게 반공이데올로기에 편승한 관제작가라는 인상을 부여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무정」에서 「만세전」으로 이어지는 식민지 시기 유학생의 내면의 식이 우리 근대문학의 한축을 이루고 있다면, 몸소 학병체험을 겪은 이병주의 제 소설들은 소설사의 공백기인 1940년대를 때로는 부분적으로, 또 때로는 전면적으로 다루었다는 점과 함께, 일제말기와 해방공간에서 그러한 유학생들의 내밀한 마음의 움직임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좀더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 의미있는 작품들이라고 하겠다. 본고는 이러한 '학병세대'의 내면의식을 중심으로 이병주의 초기단편들과 『관부연락선』, 장편 『지리산』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김종희, 「근대사의 격랑을 읽는 문학의 시각」, 『관부연락선』, 동아출판사, 1995. 667-8면 참조

3) 이보영은 『관부연락선』이 일제하 식민지 지식인의 생활과 의견을 소설화하는 적절한 방법을 태하고 있는데 일본이라는 적지의 배경과 그곳에서의 피아의 비교는 감정적인 민족의식이나 민족적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보다 균원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의 파악과 전망이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 평가했다. (이보영, 「역사적 상황과 윤리-이병주론 · 上」, 『현대문학』, 1977. 2. 322면 참조)

II. 역사에 대한 변명

단편 「겨울밤 - 어느 황제의 회상」의 주인공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서 10년의 형기를 2년 7개월 만에 끝내고 풀려나온 인물이다. 그는 감옥 안에서 우연히 함께 복역했던 '노정필'이라는 인물을 찾는다. 노정필은 인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동안 H군의 인민위원장 노릇을 하고 있다가 체포되어 무기형을 선고받고 감형된 20년의 형기를 꼬박 채우고 출옥한 사람이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 속에 유폐되어 타인과의 말을 잊고 사는 인물인데, 화자는 그의 눈빛에서 과거 학병 시절의 경험을 떠올린다.

화자는 29년전 어느 초겨울 해질 무렵,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의 일본 도가 얼마나 예리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 장교가 젊은 중국인의 목을 베는 장면을 목도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었다. 그런데 이때 중국인 청년이 보여준 태도는 고귀한 것이었다. 그는 심한 고문에도 고함 한번 지르지 않았고, 고문자를 저주한다기 보다는 스스로의 정신을 감시하기 위한 눈빛을 번득이고 있었다. 그는 한번도 다물어진 입을 열지 않았으며, 죽기전까지 결코 인간으로서의 위신과 용기, 위엄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죽어갈 때의 눈빛, 지옥을 보아버린 눈과 운명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벽 앞에 다물어버린 입모양을 노정필에게서 발견했던 것이다. 그는 노정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어떤 착각(공산주의)를 신념인 양 오인하고 있는 하나의 폐인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술회한다. 노정필의 인간회복은 그가 미워하는 환각을 기르는 일 이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는 것이라 평하면서도, 그렇지만 그를 우리 민족의 수난이 만들어낸 수난의 상징으로 받아들인다.

화자는 미움을 통해서 자신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경화된 인물인 노정필과 대비하여, 학병 시절 목숨을 걸고 자신을 비호해준 중국인 소년 사동수를 떠올린다. 사동수는 물에 빠져 거의 죽게된 화자를 건져주었을 뿐 아니라, 그에게 선물한 권총이 발각되어 죽을 고비에 이르러서도 권총을 준 사람이 화자라는 사실을 발설하지 않음으로써 화자를 지켰던 것이다. 사동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화자는 일본군의 한 명일 뿐이며 그가 물에 빠져 죽

어가든지 헌병들에게 체포되든지 가릴 바가 아니다. 오히려 분노를 담아 적극적으로 응징할 수도 있는 처지에 있다. 그러나 사동수는 인간에 대한 성실함에서 화자를 대했던 것이다. 작가는 현실의 수난과, 그 수난이 만들어낸 미움, 분노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성실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전개에서 우리는 어떠한 제도나 신념도 인간위에 군림할 권리는 가질 수 없다는 휴머니즘이 이병주의 중심 사상임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작가의 휴머니즘은 권력과 정치에 의해 짓밟힌 사람들에 대한 관심⁴⁾으로 이어지며, 역사의 행간에 묻혀버린 사람들을 그려내겠다는 소설관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목격자입니다. 목격자로서의 중언만을 해야죠. 말하자면 나는 그 중언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섭리의 작용이 나를 감옥에 보냈다고도 생각합니다.”⁵⁾

여기서 화자는 자신이 중언자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스스로를 목격자의 위치, 기록자의 위치에 입각시키고 있다. 노정필은 화자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기록이 되려면 시와 결별해야 하오. 기록자는 자기 속의 시인을 추방해야 할 거요.”라고 지적한다. 말하자면 기록이란 역사기술처럼 일체의 감정이 배제된 형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정필이 보기엔 화자의 기록에는 시심 또는 시정이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슬픔과 죽음과 비참을 아름답게 노래함으로써, 패배를 미화하고 사람들을 패배자로 만든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노정필씨의 태도에는 인간의 성실이 없으며 그가 말하는 시와 결별한 기록은 인간적인 냄새가 사라진 양상한 뼈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작가의 소설관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작품이 「변명」이다.

이 소설의 일인칭 화자인 ‘나’는 마르크 블로크의 『역사를 위한 변명』을

4) 이병주의 휴머니즘은 주로 정치권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그의 처녀작 「알렉산드리아」나 「쥘부채」, 「뻬에로와 국화」등의 작품에도 정치권력(5.16 군사정권, 공산당)의 전횡 하에서 힘없이 감옥에 갇혀있거나 오랜 형을 살다가 죽어스러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주변사람들이 조명되어 있다.

5) 「겨울밤」, 『이병주대표중단편선집』, 책세상, 1988. 267면

읽고, 우선 그 제목에 마음이 끌렸고, 그 내용에 감동했으며, 그의 생애의 대강을 알고는 감동하여 블로크를 존경하기에 이르렀다고 술회한다. 마이크 블로크는 1944년 6월 16일 독일군에 의해 총살당한 프랑스의 역사가이다. 그는 1939년 2차대전이 발발하자 여섯 아이의 아버지이며 소르본느 대학 교수의 신분으로 참전했다.⁶⁾ 그때 나이 53세, 일개 대위로 레지스탕스에 참여한 모습은 영웅적이며 감동할 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작가가 감동한 것은 그의 저서에서 그가 행한 물음과 관련이 있다. 화자는 '그의 책에서 역사를 불신해선 안된다는 안타까움을 읽을 수는 있어도 역사를 신뢰해야 한다는 그의 교훈에 설복될 수는 없었다'고 피력한다. 그가 마르크 블로크의 책을 되풀이해 읽는 것은 그의 물음의 진지함, 즉 '역사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그의 논증, 즉 역사는 정의의 방향, 진리의 방향으로 움직이며,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신뢰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조하지 않는다.

그가 이런 태도를 갖게 된 데에는 그의 '학병'시기 체험이 자리하고 있다. 학병에서의 죽음이란 노예의 죽음이나 다름 없는 것인데, 그런 회한의 학병 경험의 와중에는 '탁인수'라는 청년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국인 밀정 '장병중'의 밀고에 의해 체포된 '탁인수'는 적전부대 이탈, 분적, 이적 등의 죄목으로 종전을 두달 남짓 앞둔 45년 6월 15일에 처형된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나의 불효는 장차 역사가 보상해주리라 믿는다'였다. 즉 역사는 정의의 방향, 진리의 방향으로 움직이며 자신은 그것을 신뢰한다는 블로크의 말과 꼭같이 일치한다.

그러나 화자가 보기엔 역사는 정의의 방향으로 훌러가지 못한다. '나'는 1945년 9월 초, 한국 출신의 학도병 30여명과 함께 소주에서 현지제대를 하고 상해로 가서 체류하다가 장병중을 조우한다. 그는 동포의 애국청년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그 대가로 사파이어 베타이 편으로 차장하곤 멋진 춤가락을 보이며 여자들과 회회낙락하고 있었다. 그를 보며 역겨움과 분노가 치솟았지만 아직은 보복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참고 이듬해 2월 고

6) 김주연, 「역사와 문학-이병주의 「변명」이 뜻하는 것」, 『문학과 지성』, 1973. 봄호. p163 참조

국으로 건너온다. 수년이 지나 장병중은 국회의원에 출마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다시 어떤 의무감으로 그를 응징해야 겠다는 고백을 M군에게 이야기 했을 때, 그는 장병중과 같은 이가 한둘이 아니라는 이유로 만류한다.

장병중이 그렇게 과거의 잘못을 숨기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타인수의 유골은 일본의 후생성 창고에 2천여 주의 유골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는 현실, 이 기묘한 아이러니가 바로 블로크가 말한 역사에 대한 신뢰를 회의하게 만든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장병중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은 죄과에 대한 응징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결코 역사를 바로잡지는 못하는 것이다. 화자는 결국 10여년이 흐른 뒤에 26년 전 같은 운명에 끝었던 친구들의 정성을 모아 부산항의 양지바른 언덕에 순국열사로서 그를 송덕하는 비를 세운다.

이 송덕비를 세우는 일, 그것은 작가의 결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즉 철저한 기록자의 위치에 서겠다는 것, 역사를 변명하기 위해서 소설을 쓰겠다는 결심의 상징적인 반영물이 바로 '송덕비'에 해당한다. 타인수를 죽음으로 몰고갔던 장병중을 제거하는 것이 결코 역사를 바로잡을 수는 없는 것, 즉 장병중이 타인수의 죽음의 원인이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나'를 소설가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역사에 있어서의 유일한 원인의 탐구란 일종의 미신이며, 책임자를 가려 내려고 하는 가치판단의 교활한 형식에 불과하다. 공죄가 어느 편에 있느냐고 재판관은 묻는다. 화자는 왜?라고 묻고 그 답안이 단순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만족해 버린다. 원인의 일원론은 역사의 설명에 있어서 장애물일 따름이다. 역사는 원인의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⁷⁾

작가는 이러한 역사에 대한 변명으로서 소설을 쓰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타인수' 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전쟁에 타의로 끌려들어가 하마터면 노예의 죽음, 개만도 못한 죽음을 맞이할 운명에 놓여있었던 자신에 대한 변명이기도 하다. 동포를 팔아넘기고 호의호식하는 장병중과 죽어서 유골로 남은 타인수 사이의 어느 자리에 치욕적

7) 「변명」, 앞의 책, 296면

인 학병체험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화자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이병주의 소설은 대체로 이 지점에 걸려있다. 학병세대의 기묘한 원죄의식, 그리고 우리의 불행한 현대사에 대한 변명으로써 써어진 것이 이병주의 제 소설인 것이다.

작가의 이러한 역사에 대한 인식과 기록으로서의 소설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소설이 바로 『관부연락선』이다. 이병주의 단편소설들은 대부분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을 겪어온 작가의 개인적 경험들에서 얻은 소재로 써여져 있다. 또한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 역사와 정치에 관한 문제들이다. 이와 같은 이병주 소설의 본령인 현대사의 굴곡은 짧은 분량으로 서술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고, 작가의 소설 작법 역시도 단편소설에 적합한 미학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야기의 측면, 서사와 서술의 비중이 높다. 그의 작품들이 단편보다는 중편이, 중편보다는 장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의 단편 소설들은 따라서 『관부연락선』이 만들어지는 준비작업에 해당하며, 『관부연락선』이야말로 작가가 말한 본격적인 '기록으로서의 소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학병세대의 내면의식

『관부연락선』은 파란만장한 작가의 이력을 바탕으로 일제말 암흑기인 40년대부터 해방 후 6.25전쟁 무렵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회귀하면서도 독특한 소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와 평가작업은 몇몇 단편적인 평론 정도에 그칠 뿐이었다. 김외곤이 『관부연락선』을 여러 가지 장애 요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40년대를 문제삼은 소설이라는 점, 즉 우리 소설사에서 거의 공백기로 남아있는 시대를 다루었다는 것만으로도 문학사적 의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작품이며, 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⁸⁾을 제기하기 이전까지는 이 작품은 이렇다할 언급조차 되지 않을 만큼 외면 당해왔다. 이병주라는 작가 자체에 대한 평가 자체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

8) 김외곤, 「격동기 지식인의 초상 - 이병주의 『관부연락선』, 『소설과 사상』, 1995. 가을, 276면

니라, 그나마 관심을 갖는 평자들도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지리산』이라는 대하 실록 소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관부연락선』은『지리산』을 위한 준비작업 정도로 간주했던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관부연락선』은 크게 세부분의 시기, 즉 유태림의 대학시절과 학병시절을 포함하는 일제 말기, 해방 후부터 6.25까지의 C고등학교와 C대학교로 재직한 시절, 그리고 한국 동란부터 유태림이 해인사에서 공비에게 납치되어 실종될 때까지의 시기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작품의 줄거리를 주인공 유태림의 행적에 따라 재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주인공 유태림은 일본에 유학을 가서 대학 문과를 다니다가 학병으로 끌려가야 했고, 그래서 중국 중부의 소주 지방에 머물면서 일본 군인으로서 많은 고생을 해야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해방된 조국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조국은 막바로 민족 단일국가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민족은 좌우의 으로 분열되어 갈등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서 유태림은 고향인 C시의 모교에서 교편을 잡고 그 혼란의 와중에 힙쓸려 들어가게 된다. 그러던 중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자 주인공은 인민군에 체포되어 그들에게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가 인민군이 후퇴한 뒤에는 인민군에 부역한 죄로 경찰에 체포되기에 이른다. 겨우 경찰에서 풀려난 그는 어지러운 세상을 등지기 위해 해인사에 갔다가 빨치산에 납치되어 행방불명이 되고 만다.

김외곤은 이 작품이 중도적 입장의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데올로기 문제를 다루면서도 우리 소설사에서 드물게 성공적인 경우로 평가 받을 수 있었다고 평하면서, 결국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로 현실을 살아가려는 그의 노력은 전쟁이 발발하면서 좌익에 의해 체포되어 이용당하고 우익에 의해 체포된 후 결국 빨치산에 납치되어 실종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고 파악한다.⁹⁾『관부연락선』을 표충적인 줄거리를 따라 읽어갈 경우, 이 같은 파악은 대략 작품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 작품의 진정한 가치란, 주인공 유태림이 속했던 세대의 시대적 감각과 감수성, 그들의 일본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오롯이 떠오른다고 할 수 있다.

9) 김외곤, 앞의 글, 281면

작가는 이점을 '작가 부기'에서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다.

유태림의 비극은 육이오동란에 휩쓸려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과 통분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본에서 일본인의 교육을 받은 식민지 청년의 하나의 유형을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만큼 관부연락선 말기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의 비극에 대한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다.

학병으로 지원하겠다는 각오를 쓴 그의 편지를 지금의 의식으로 읽어 볼 때 이 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일이란 것을 알 수 있다.¹⁰⁾

여기서 작가는 『관부연락선』이 단순히 중도적 지식인의 비극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일본인의 교육을 받은 식민지 청년의 비극을 담고 있다고 힘주어 밝혀놓고 있다. 작가가 말하는 '관부연락선 말기세대'는 '3.1 운동을 전후해서 태어났고 그 후의 반동기 속에서 확연한 태도를 정하지 못하고 이를 테면 어중간한 태도를 가지고 성장'한 세대다. 이들보다 한세대 앞의 사람들은 친일이면 친일, 반일이면 반일로 어떤 뚜렷한 자신의 입장을 가졌지만,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 '일본 민족과 일제 통치에 대한 감정의 폭이 굉장히 넓고 멀리케이트한 면'이 많았던 세대인 것이다.¹¹⁾ 이같은 학병 출신 세대의 역사적 감각이란 어떤 것이었나하는 점이 이 작품 내에 녹아있는 유태림의 수기부분에 나타나 있다.

『관부연락선』은 유태림의 수기와 해방공간에서 유태림의 교육자 생활 기간의 상황이 교차편집되어 있다. 이중에서 유태림의 수기는 주로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술되는 식민지 상황에 대한 견해는 매우 미묘하며 복잡하다.

유태림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 대해 책임을 모두 일본에 전가시키지 않는다. 열강이 지나 대륙을 제각기 식민지화하려고 법석을 떨고 있는 세계정세 속에서 일본에만 도의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며 조선인은 일본을 책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책해야 한다는 고다의 논리를 유태림이 그대로 수용하면서 백성들의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정치라는 측면에

10) 「작가부기」, 『관부연락선』, 신구문화사, 1972. 399면

11) 남재희·이병주 대담, 「회색군상의 논리」, 『세대』 1974. 5 239면 참조

서 봤을 때 일본의 수탈이 가혹하다 하더라도 이조 정권보다는 월등하게 나았다는 생각에 대해 동조한다. 정약용의 ‘목민십서’에도 나와있듯이 이조 말엽의 학정과 썩은 정치를 나열하며 ‘동서고금을 통해 이처럼 무자비한 정치가 행해진 곳이 있었겠는가 반문하며 우리 민족의 책임을 문제삼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완용의 미국체험을 인용하여 일본의 지배를 합리화하는 면을 보이기도 한다. 미국체류중에 한국인은 돼지보다 못하다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이완용은 적어도 구미인들에 의해 지배받는 것보다는 같은 동양권의 일본에 합방하는 것이 더 낫다는 논리¹²⁾를 펼쳤는데, 거기에도 한가 닥의 진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태도마저 드러낼 만큼 우리 민족에 대한 모멸감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었다. 한일합방 이후에 태어나서 한번도 우리민족의 나라를 가져보지 못했던 학병세대에게 어쩌면 이와 같은 판단이 보편적인 것이었을 수 있다. 유태림은 식민지 시대 일제의 교육제도를 통해 자아를 형성한 유학생이다. 이때 이 식민지 교육제도란 한국인의 처지에서 보면 두가지 의미층을 이루게 된다. 첫째는 그것이 근대제도라는 것이다. 이때 근대제도란 합리주의와 보편성에 바탕을 둔 서구의 그것과 동일한 맥락을 띤다. 둘째, 이러한 일본의 교육제도는 자본주의, 또는 제국주의의 원리에서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라는 점이다. 일제강점기 속에 놓인 한국인의 처지에서 보면 식민지 교육과정은 식민지적 현실의 궁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크게 본다면 일제가 만들어놓은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이미 제국주의적 시스템 속에, 근대의 시스템 속에 편입됨을 의미하며 그 속에서의 비전은 그 시스템 속에서의 ‘신분상승’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었다.

배가 떠날 때나 도착할 때 부두엔 언제나 식전의 기분이 감돈다고 했다. 그러나 시모노세키의 경우와 부산의 경우는 다르다. 시모노세키의 부두엔 오가는 사람의 기분과 감정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런데 부산의 부두는 항상 체

12) 일반적으로 친미파로 분류되는 미국 유학 출신의 지식인층이나 기독교계 인사들에게 백인종, 구체적으로는 앵글로색슨족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상당한 수준에 있어서 이것이 친일의 계기로 작용했다. (『윤치호 일기·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 김상태 편역, 역사비평사, 2001, 22면 참조)

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남는다. 그렇게 되는 이유의 하나는 부두의 항구석에 도항중 검사소가 있어서 그곳을 일반 반도인의 승객들은 학생과 특수인을 제외하고 꼭 거쳐야 하는데 있다.

비좁은 장소에 앞을 다투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백 명씩 들이닥친다. 몇 개 안 되는 창구에다 고참고합 도항증을 들이밀고 검인과 더불어 승선권을 받아야 한다. 이 승선권이 없으면 기차표와 선표가 있어도 배를 타지 못한다. 간혹 위조 서류를 디밀었다가 발각이 나서 묶여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내선일체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테가 이곳이다.¹³⁾

그러나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잇는 관부연락선에서의 경험은 식민지 백성에게 굴욕적인 자기존재를 강제로 인식시킨다. 조선의 고통받는 식민지 백성들의 경험은 차치하고서라도 아무때고 불쑥 찾아와 혐의를 뒤집어 쏙우고 연행해가는 일본의 고등경찰의 불쾌한 태도는 유태림으로 하여금 식민지인임을 자각하게 만든다. 유태림은 자신이 동료인 일본인 E와는 결코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영원한 2등 민족이며, 그것을 받아들일 때 1940년 11월에 발생한 '노다이' 사건처럼 부당하고 노골적인 차별대우를 감수하며 '일본인에 비해 배가 차이 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감내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절감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 역시 학병세대의 또하나의 운명이었다.

유태림이 학병에 지원하게 된 데에는 이와 같은 학병세대의 상황이 밑그림처럼 깔려있다. 유태림은 독백처럼 자신이 학병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꼽는다. 첫째, 자신 때문에 감옥살이의 고초를 겪게 된 서경애에 대한 심적부담과 그로인한 자포자기의 심정, 둘째 자신에게 친절했던 본적지 경찰서장 오아의 애원, 셋째 유태림 집안이 고향에서 유명했기 때문에 그 특수한 사정을 이용해 자신만 학병에 가지 않았다고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 이 세가지 이유로 학병에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는 자기 합리화에 가깝다. 이 점은 학병에 지원하기 이전에 일본인 학우 한사람에게서 '카이로 선언'의 원문을 받았다는 유태림의 고백에서 은근하게 제시된다. 1943년 11월 말에 열린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은

13) 『관부연락선』, 앞의 책, 343면

비록 한국의 즉각 독립을 보장하지는 않았지만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켜 줄 것을 합의했다.¹⁴⁾ 그 내용이 포함된 카이로 선언의 원문을 보고서도 학병에 지원하기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실감에까진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조국을 독립시켜 주려고 하는 세력에 항거하는 진영에서 총을 들어 독립시켜 주려는 진영의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는 데 기묘한 당착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고백에 자리잡고 있는 사실은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일제의 폐망을 믿지 않았다는 점이고, 그럼에도 학병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일본의 병정노릇을 함으로써 일본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 대우를 없앤다고 하는 비굴한 생각"¹⁵⁾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장편 『지리산』의 이규라는 인물도 이와 같은 학병세대의 내면의식을 드러낸다. 『지리산』에서 작가가 내세운 두명의 주인공 가운데 '이규'가 있다. 그는 진주 중학을 다니면서 박태영을 알게된다. 또 하명근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고, 그의 가르침 아래서 일본 경도의 3고생이 되고, 동경제대에 까지 진학한다. 거기서 역사학을 공부하다가 학병을 피해 하준규, 박태영 등이 조직한 패관산 보광당에 가담하여 해방을 맞이한다. 그러다 해방 후에는 혼란한 정국을 피해 프랑스로 유학길에 오르고, 10년 뒤에 귀국하여 민족주의자이자 공산주의자인 박태영과 지리산 남부군의 기록을 작성한다.

14) 서중섭,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해방후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통일전선』, 역사비평사, 1991. 283면 참조

15) 당시 많은 조선인 지도자들이 이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조선인들이 민족차별에서 벗어나는 길은 일제의 내선일체 정책을 받아들여 일본인이 되거나,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대동아전쟁에 중요한 기여를 함으로써 일본이 승리한 후 대동아 공영권 내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층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조선의 청년들, 특히 일제의 황국신민화 이념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던 학생층에서도 이러한 논리를 수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이들은 일본의 민족차별에 대한 반감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 학교에서 배운 '위대한 일본'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조선인'의 처지에 비관했다. 어떤 경우에는 민족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는 일본인보다 뒤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절규하기 위해 일제의 전쟁동원 정책에 적극 뛰어들었다. (한국역사연구회, 「전쟁에 끌려간 사람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2』, 역사비평사, 1998. 288면 참조)

이러한 ‘이규’라는 인물 역시 일제 강점기에 진주중학-경도3고-동경제대라는 최고 엘리트의 과정을 밟은 인물이다. 일제가 만들어 놓은 엘리트 양성 코스에 끼어들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는 해방 이전까지는 ‘입신출세’를 위한 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고, ‘신분상승’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장편 『지리산』의 초반부는 이러한 ‘이규’의 학창시절에 집중되어 있다.

이규는 어린 시절부터 막연하게 ‘입신출세를 해야겠다는 소박한 의욕’을 지니고 일제하의 교육제도를 순차적으로 밟아간다. 동급생이자 절친한 친구인 지리산의 또 다른 주인공 ‘박태영’이 “일본놈들이 만들어놓은 가치 질서에 편승하는 것은 구역질”이 나는 일이라며 교육제도의 바깥으로 빠져 나가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반해, 막연히 체제 내에서의 신분상승을 꾀한다. 이러한 태도는 당시로서는 특별할 것이 없는 보편적인 감각에 속하는 것으로 서술된다. 그가 경도3고의 입학시험 준비를 위해 한적한 상주로 내려가서 머무를 때 만난 손님들은 아무런 스스럼없이 자신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육군사관학교’에 갈 것이라고 피력하는데, 그것은 ‘실리와 직결된 공부’를 통해 입신출세하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욕망일 뿐이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명문고나 명문대학의 학생이라는 신분은 일본인에게도 존경을 받고, 모두가 우호적으로 대하는 매력적인 지위였고, 식민지 학생으로서는 자신이 식민지 출신이라는 자각을 잠시나마 잊게 만드는, 상충부에 거의 근접한 지위였던 것이다.

그런데 ‘학병’에 참가하라는 요구는 이러한 식민지 엘리트 학생의 마음속에 동요를 일으킨다. 1920년대, 3.1운동 이후에 태어나 조국을 가져본 적이 없는 ‘학병세대’의 학생들에게 학병에 참여하라는 요구는 일본을 위해 죽으라는 요구와 다름이 없다. 또한 그 학병을 거부하는 행위 역시 목숨을 거는 행위였던 것이다. 교육제도가 부과하는 합리적 개인으로서의 판단에 민족주의적인 선택의 문제가 겹쳐졌던 것이다. 여기서 한번도 조국을 가져본 적이 없고, 일제하의 문화정치 아래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민족주의적 선택이 절체절명의 문제로 다가오기는 힘들었던 것이고, 따라서 이규의 학병거부는 작품 「지리산」에도 나와있듯이 능동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태영에게서 처음에 지리산행을 권유받았을 때, 명확한 자기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정작 떠나기로 약속한 때에 이르러서는 태영을 찾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태영은 얼마후 이규를 '회색의 군상' 가운데 한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엽서를 보내고 이규는 통곡한다. 여기서 '회색의 군상'이란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 대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확실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 사고의 틀이 체제내로 한정 지워진 사람들, 그리고 일상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내면의식은 학병 거부자의 그것이라기 보다는 망설이면서 학병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었던 「관부연락선」의 유태림과 닮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해방공간에서 국가를 만들어 갈 때 발언의 기회를 상실할 수 밖에 없었다. '죄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현실을 회의할 수는 있어도 적극적으로 '나라만들기'에 뛰어들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작품 중반부에 퇴장하여 프랑스로 떠나고 10년 후에 돌아와서 '기록자' 또는 '관찰자'의 역할을 떠맡게 된다. 이병주의 초기 단편들에 나타나는 기록자로서의 소설관, 관찰자로서의 소설관은 바로 이 '학병'에 자발적으로 끌려갔던 자의식의 연장선상에 서있다. 스스로는 나라를 만들 자격이 없다는 것, 단지 기록하고 관찰하는 소명만을 다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세대를 우리가 '학병세대'¹⁶⁾라고 이름한다면, '관부연락선'은 이들 세대가 30-40년대 가지고 있었던 유학생 계층의 내면의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작가가 제목으로 제시한 '관부연락선'이란, 단순한 교통제도도 아니요, 한국인에게는 수인선과 같은 배만도 아니었다. 관부연락선이란 일본을 향한, 근대를 향한 한국 청년들의 열망의 상징이자, 식민지인으로서의 자의식을 자극하는 모멸의 상징이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학병세대'의 정신적 상징물이었다고 할 것이다.

16) 김윤식은 이병주의 소설들을 학병세대의 문학적 발언으로 파악하면서, 가치체계의 내부혼란을 학병세대의 내면풍경의 중심부로 파악한다.(김윤식, 「작가 이병주의 작품세계-자유주의 지식인의 사상적 흐름을 대변한 거인 이병주를 애도하며」, 『문화사상』, 1992. 5. 326-7면 참조)

IV. 「에뜨랑제」의 허무주의

‘학병세대’의 내면의식, 즉 동경 유학생의 내면의식이라는 측면에서 『관부 연락선』은 춘원의 『무정』과 염상섭의 『만세전』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일본을 원망하면서도 선망하는 유학생의 내면풍경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¹⁷⁾ ‘선망’의 힘이 강할 경우 식민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여 ‘고등 문관 시험’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 반면 ‘원망’의 힘이 강할 경우 ‘항일무장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 ‘선망’과 ‘원망’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여 길항하며 심각하게 갈등할 때 당대의 유학생들은 어떤 생활태도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 유태림이 선택했던 랭보의 시, 자기 저주와 방랑 등과 같은 에뜨랑제의 사상이 그 하나였을 것이다.¹⁸⁾

유태림이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조선지배에 대해 일면 긍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밀바탕에는 현실주의, 즉 구체적 정황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는 자세가 깔려있다. 이는 근대적 교육제도가 알려준 것으로 사상을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즉 제국주의가 침략적 민족주의라는 측면에서 그에 저항하는 저항적 민족주의의 쌍생아임을 자각하는 태도, 그래서 일본에 대해 감정적인 분노를 가지기보다는 객관적인 국제 정세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태도가 바로 현실주의적 자세의 소산이다.

17) “학병세대를 두고, 현해탄의 사상에 관련지우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해탄 저쪽에 출세의 도구로서의 사상이 손짓하고 있었던 것. 그 사상이란 근대성을 내포하고 근대성을 끊임없이 묻고 있었던 것으로 요약된다.”(김윤식, 앞의 글, 326면)

18) 식민지의 엘리트 혹은 부르주아지가 택할 수 있는 행위의 유형은 크게 보아 세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저항과 순응, 그리고 도피의 세가지이다. 여기서 유태림이 보인 형태는 이 세가지의 유형이 모두 뒤섞여있지만, 그 중에서 ‘순응에 가까운 도피’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저항과 순응, 그리고 도피의 제 각각의 반용이 모두 ‘근대적 발전’에 대한 열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도의 동형성을 보인다.(서사연, 『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 새길, 1997. 34-5면 참조) 『지리산』의 두 주인공 박태영과 이규가 서로 다른 길, 저항과 순응(도피)을 택하지만 이 둘이 보이는 상동성은 이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약육강식하는 생존경쟁의 마당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의 야망을 책하는 풀보다 치사스러운 꽃이란 없다. 대국과 강국의 자의대로 세계의 지도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독 일본에게만 도의와 인도주의를 요구한다는 건 도무지 우스운 얘기다. 한반도의 비극과 불행은 한국인의 책임으로 다루고 설명해야 할 문제이지 남을 탓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¹⁹⁾

위와 같은 유태림의 고백은 자신이 마치 제 3국의 국제정치 평론가나 된 것처럼 완전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쁘게 말하면 '몰주체적인' 관점에서 일본이 그르다면 다른 모든 강대국도 그르고 강대국들이 옳다면 일본 역시 옳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즉 국제관계에서는 '정의'나 '인도'가 아닌 '정글의 법칙', 곧 약육강식의 논리가 통용된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힘의 정의'가 지배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이인영 의병대장과 그 동지들의 행동도 위대하기는 하지만 일종의 아나크로니즘(시대착오)로 파악되며, 여운형 역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패한 정치가로 평가된다. 그와 반대로 이승만은 미소를 대국으로 하는 두 개의 세계 속에서 그와 같은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앞서서 파악하고 실천함으로써 정권 쟁탈의 경쟁에서 이겨 남았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태림의 판단, 즉 작가의 평가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행위 유형이 무엇이냐에만 걸려있을 뿐, 각각의 인물이나 국가의 선악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즉, 현실성이 없이 당위나 신념만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현실세계에서 통용되지 않으며, 때로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심각한 재앙을 불러온다는 입장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자리산』에서 남로당의 한계를 지적하는 대목에서 보여주는 작가의 시각도 이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1946년 9월에 있었던 총파업 지령과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10월 인민 항쟁'은 좌우의 양쪽에 많은 사상자만 내고 허망하게 진압된 폭동이었으며, 이 폭동으로 인해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것은 우익이나 경찰, 미군정도 아니고 공산당 자신이었다고 작가는 서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로당의 대중조직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으며, 그들을 지지하던 대중의 지지는 위축되었다는 것이 작가의 판단인 것이

19) 『관부연락선』, 앞의 책, 207면.

다.²⁰⁾ 아울러 이로 인해 좌우의 투쟁은 스포츠처럼 우세를 차지하기 위한 법률관계에서 서로 죽느냐 사느냐의 감정관계로 들어갔으며, ‘비합법적인 폭동을 일으킨 자가 비합법적인 처우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항의를 할 수 있겠는가’하는 특유의 현실정치감각을 드러낸다.²¹⁾

또 48년 10월 20일 발생한 여순반란사건은 좌익의 잔학을 만천하에 증거로서 제시하여 민심을 잊게 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군대내에서의 좌익의 뿌리를 뽑게하는 철저한 숙군의 동기가 될 것으로 보았다. 그의 현실주의에 따르면 그 세력을 그냥 온전하고,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무의한 살생을 피하고, 무혈로 역사의 국면을 일신해 버릴 수도 있었던, 남로당의 입장에서도 매우 비현실적이고 모험적인 전술이었던 것이다.

『관부연락선』이나 『지리산』에서 작가가 천명한 소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같은 현실주의의 문제이다. 작가는 이데올로기간의 격렬한 갈등의 현장이었던 우리 현대사에 대해 작가나름의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저항적 민족주의와 침략적 민족주의의 대립, 좌의 이데올로기와 우의 이데

20) 서중섭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작가의 판단은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서중섭은 9월 총파업으로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기본 대중조직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조선공산당과 전평은 총파업을 지도할 만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투쟁을 벌였던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10월항쟁 역시 조직적이고 목적의식적으로 지도하지 못하고, 선동과 일부 지역에 비계획적인 ‘호옹 투쟁’의 지시만을 하여 농민들과 지방 좌익이 큰 회생을 치르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서중섭, 앞의 책, 444-464면 참조)

21) 『관부연락선』에서 시월항쟁의 선두에 나섰다가 C시(유태림의 고향마을, 작가의 고향인 진주)로 숨어들어온 서경애와 설전을 벌이는 유태림의 입장도 이와 동일 선상에 있다. 혁명의 당위와 미군정의 학정을 비판하는 서경애에게 유태림은 이념적인 차원에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정황을 바탕으로 비판을 한다. 미 제국주의의 위력은 무서운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미국을 알아잡아 보는 행동을 하는 좌익의 현실감각, 그것이 사람들을 비극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세계 어느 나라에 어느 역사에 점령군이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청을 부수려고 덤벼드는 군중들의 자의에다 맘겨두고 수수방관하는 사례가 있었겠어? 미군을 섬군으로 알았다면 너무나 낙천적이고 그런 결과를 알고도 했다면 너 무나 잔인하고 그 뒤에 나타난 사례에 대응하고 있는 꿀을 보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관부연락선』 281면

율로기의 대립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자는 또 다른 문제들, 즉 추상성과 구체성의 대립이라는 틀을 들이댄다. 명분과 비분강개, 낭만적 결단 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위엄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현실의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로 파악한다. 냉정하게 정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당위만을 내세운 행위는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현실주의자이자 합리주의자가 ‘힘’을 갖지 못했을 때, 그럼에도 인간적인 존엄을 잊지 않는 방식은 선택된 ‘허무주의’이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 아닌 어떤 힘에 송두리째 맡겨 버리고 있다. 자기 의사가 아닌 남의 의사로써 우리 생활을 규제당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즉 자진 참여하지도 못한 정치의 작용을 받고만 산다. 이런 심정이 에뜨랑제로서의 심정이 아닌가.”는 말로 작가는 일제 치하에서 유태림과 같이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취한 유학생 세대의 내면상태를 설명한다. 잘못된 현실을 고칠 만한 힘이 없을 때, 신념이나 이데올로기에 온몸을 투신할 수 없는 사람에게 현실은 ‘운명’처럼 파악되며, 허무주의에 빠져들게 된다.

병정은 그저 병정이지 어느 나라를 위해, 어느 주의를 위한 병정이란 것은 없다. 죽기 위해 있는 것이다. 도구가 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수단이 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 죽느냐고 묻지마라. 무슨 도구냐고도 묻지 말 것이며, 죽는 보람이 뭐냐고도 묻지 말아야 한다. 병정은 물을 수 없는 것이다. 물을 수 없으니까 병정이 된 것이며 스스로의 뜻을 없앨 수 있으니까 병정이 되는 것이다.....운명... 그 이름 아래서만이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것이다.²²⁾

수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이와 같은 고백은 한국 현대사를 움직인 것이 결국 운명이었으며, 그 속에서 한국의 지식인은 ‘에뜨랑제’이자 ‘병정’일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담겨 있으며, 이를 이름하여 ‘에뜨랑제’의 허무주의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에뜨랑제로서의 자기도피, 현실주의의 중도적 합리주의를 표방한 유태림

22) 『관부연락선』, 앞의 책, 663면.

이 어째서 이념의 급류속에 몸을 담그게 되었을까. 가장 손쉽게 들 수 있는 이유는 당시의 정황일 것이다. 적어도 고향인 C시에서는 수재이자 명망가였던 유태림이 그 사상의 대립시기,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흑백의 논리'가 횡행하던 시절을 피해가기 어려웠다는 이유. 그러나 유태림의 아버지를 떠올리면, 이러한 상황논리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의 아버지는 유태림 못지 않은 지식과 사유를 갖추었으면서도 혼탁한 시절을 나름대로 순조롭게 넘어갔다. 그렇다면 유태림으로 하여금 아비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한 또다른 동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유태림의 세대의식, 즉 학병세대의 자의식의 작용이 가져온 초조함 때문이었다.

나는 언제나 방관자였다. 본의 아니게 좌우익의 투쟁에 말려들어 가기는 했어도 마음의 바닥엔 언제나 방관자로서의 의식이 작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란 끝내 방관자 행세만을 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자기 편의대로만 살아가는 소시민적 근성을 청산해 버리는 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한번 목숨을 걸어보는 결단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학생 시절은 물론 그 뒤 병정생활, 지슴의 생활을 통해서 조국이나 민족을 위해서 지푸라기 하나 들려고 하지 않았거든. 영리하게 구는 척했지만 이건 영리한 것이 아니라 비굴한 것이었어. 사람은 자기 이외의 자기를 넘어 있는 어떤 것을 위하는 그런 것을 가져야 할 것 같애. 보잘것없는 자기를 지키기에 전전긍긍하는 끌을 탈피하고 싶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지켜지는 것도 아니니 말야. 설혹 냉정한 제 3자가 볼 땐 어리석은 노릇이라고 해도 어떤 목적, 어떤 사명감으로 해서 스스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각오와 실천이 있어야 될 것 같애...

이와 같은 유태림의 말에 성실성이 없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내 귀에는 먼 소리로 들렸다. 일종의 초조감이 표명된 것이기는 해도 말의 내용을 그대로 진실이라고 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²³⁾

앞서 이 세대의 자의식에 대해 상술한 바 있지만, 이들이 해방을 맞이하며 느낀 감각이란 방향을 찾지 못함, 그것이었다. 민족의 해방을 적국의 전 영내에서 적국의 군복을 입고 맞이한 느낌, 민족의 해방에 손꼽하나 조력하

23) 『관부연학선』, 앞의 책, 525면.

지 못했다는 무력감, 그것이 유태림의 초조를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김윤식의 지적처럼 『지리산』이 학병거부자 하준규의 실록에 바탕을 둔 것임이 분명하고²⁴⁾ 그것은 당당하게 조국의 광복을 맞이한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때 '이규'와 같은 학병세대가 자리할 영역은 해방 이후에는 없었고 그는 10년간 고국을 떠나 있어야만 했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학병세대는 죄의식에서 비롯하는 조급함은 '박태영'이 "나는 내 운명을 너무나 간단하게 선택해 버렸다."고 고백했던 것과 같은 성급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영근, 권창혁과 같은 '이규'의 분신과도 같은 인물을 등장시키고, 마침내 '박태영'을 권창혁의 제자로, 허무주의자로 몰아간 작가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신념과 당위에 기반한 이념, 즉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에 의해 일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세울 수는 없다는 인식, 점진적인 민주주의의 훈련에 의해 서서히 민족국가를 세워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에 얹혀있는 한일관계는 '보광당' 당원들이 맞이했던 해방의 감격과 함께 깨끗하게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점을, 관부 연락선의 개통과 함께 '학병세대의 원죄의식'이 비롯했다는 사실을 애써 '변명'하고자 함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24) 김윤식은 소설 『지리산』이 「신판 임꺽정-학병거부자의 수기」(신천지, 1946.4 - 6, 제 1권 3호)를 바탕으로 써여진 것이며, 따라서 이 수기의 중심인물인 하준수(소설에서는 하준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작품의 중심부에 놓여 있다고 파악한다.(김윤식, 「지리산의 사상」,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이데올로기비판』, 서울대 출판부, 1987. 184-3면 참조)